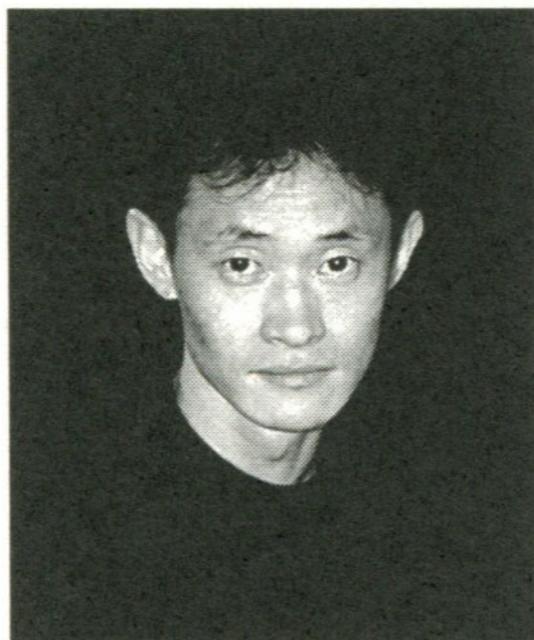


글 **열린마당** 38

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정하지 못하는 불안을 가슴에 기쁜 사람을 위해

Happy and Dim

- 늘·향상·언제나 -



작·연출 / 하현관

saram4865@hanmail.net

‘하늘엔 꿈이 있고 땅엔 사람이 있다.

사람은 꿈을 찾아 하늘을 바라보고, 꿈은 비로 내려 땅을 적신다.’

하늘처럼, 꿈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-----.

하지만 사람들은 땅을 딛고서서 하늘만 바라보기도 하고

하늘을 머리에 이고서도 땅만 밟아 다니며 살기도 한다.

슬픔과 아픔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사랑만을 쫓으며 살 수 도 없다.

꿈같은 사랑을 꿈꾸며 현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

조각처럼, 유화처럼, 그리고 수채화처럼 그려 본 마임.

- | | | |
|-------|-----------|--|
| 1990. | 8. | 극단 ‘현장’ 입단 |
| 1995. | 1. | 극단 ‘부두 연극단’ 입단
연극 <고도를 기다리며> <자갈치> <물고기의 축제> <유리 동물원>외 20여편 출연 |
| 1996. | 11. | <하현관 무언극 – ‘대사없는 1막’, ‘문’> 공연 (연당소극장) |
| 1998. | 3. | 마임 퍼포먼스 <곰 · 소리> 공연 (연당소극장) |
| 1998. | 12. | 무용 <KIM BO YOUNG MOVEMENT 1998> 출연 (태양아트홀) |
| 1999. | 2. 25~28 | <한 · 일 판토마임 교류전> 참가. (경성대 정보 소극장) |
| 1999. | 3. 13~17 | <록과 마임 · 무빙 이미지의 자유공연> 참가 (공간 소극장) |
| 1999. | 6~7. | 극단 ‘열린무대’ 제1회<월요 마임 무대> 공연 (열린 소극장) |
| 1999. | 7. | 단편영화 <부적격자> 출연 |
| 1999. | 9. 5 | 부산 농아인협회 주최
<‘99 수화인의 만남’ 축하> 공연 (시민회관 대극장) |
| 1999. | 10. | 극단 ‘열린무대’ 제2회 <월요 마임 무대> 공연 (열린 소극장) |
| 1999. | 12. 11~13 | ‘그랜드 오페라단’ <피가로의 결혼> 출연
<하현관, 허승민의 마임무대 - 시간과 꿈의 여행> 공연 (경성대 소극장) |
| 2000. | 7. | 일본 동경 ‘아리스 페스티발’ 참가 |
| 2000. | 8. | 극단 ‘처용’ <해바라기> 출연, 무대장치 (일본 타이니 아리스 소극장) |
| 2000. | 10. | 청소년 영화제 축하공연 (초읍 청소년 문화센타) |
| 2000. | 12. 16 | 청소년 연극제 야외 축하무대 공연 (초읍 청소년 문화센타) |
| 2001. | 3. 28 | 부산연극제 개막 축하공연 (시민회관 야외무대) |
| 2001. | 5. 21 | 청소년 연극제 개막 축하공연 (시민회관 소극장) |

● 남과 여

태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다. 남자는 여자의 반쪽이었고, 여자는 남자의 반쪽이었다. 그들은 서로 만나 의미가 되었고, 하나로 합쳐 인간이 되었다. 그러지 못한 그들은 또---.

출연 / 배진만 · 김영림 · 김근수 · 이정비 · 손남숙 · 장명연 · 권철휘

● Happy and Dim - 신데렐라

And,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--- (그리고, 그들은 이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).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, 마녀 계모의 계략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백설공주, 심술스런 마녀의 마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게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, -----. 그 해피엔딩을 맞은 동화속 주인공들의, 이후에 누리는 영원한 삶의 'Ever after'.

출연 / 김근수 · 손남숙

● 사랑은 언제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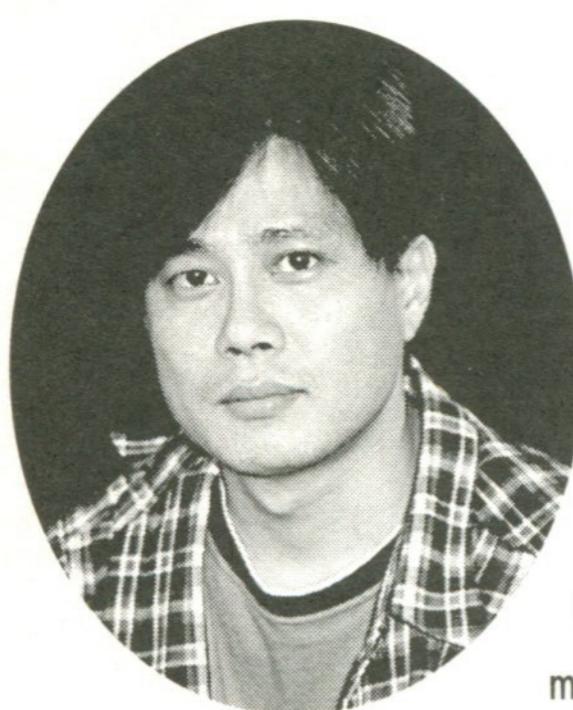
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,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,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, 그리고 언제나 사랑은 ---.

출연 / 배진만 · 손남숙

● Happy and Dim - 추억

우리는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을 꿈꾼다.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.
그러한 꿈으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. 있는 그대로의 지금 우리의 모습을
그림처럼 도화지에 그려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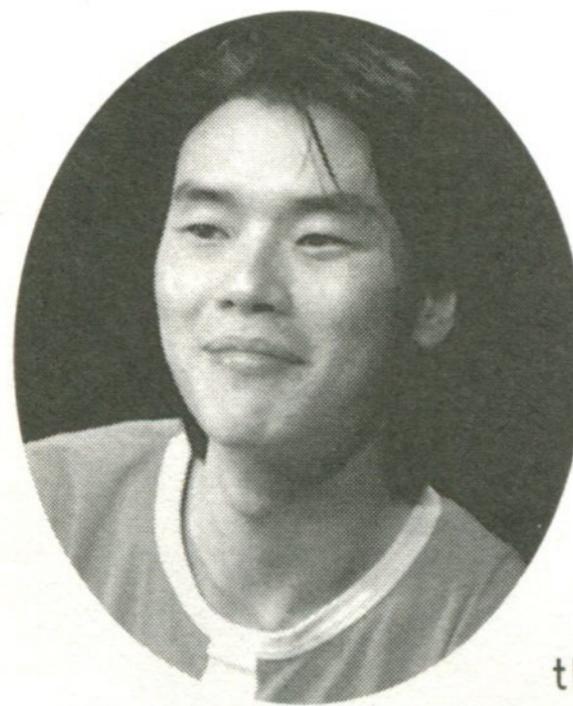
출연 / 김영림 · 이정비



배진만
mohny@hanmail.net



김영림
may24@hanmail.net



김근수
thespian@hanmail.net



이정비
suit-case@hanmail.net



손남숙
orangeanne@hanmail.net



장명연
acquired@hanmail.net



권철휘
hui-kc@hanmail.net



음악 / 이세호
grotesquer@sayclub.com